

한 구원자를 세워

삿 3:1-11

2021년 11월 6일(토)

1.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는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바로 이들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는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란, ‘훈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가르쳐 알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 훈련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됩니다.

2.

이스라엘을 순종훈련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민족들에 대해서 3절에 열거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네 그룹입니다.

1)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 2) 모든 가나안 족속, 3) 시돈 족속, 4) 히위 족속

성경에서 숫자 ‘4’는 네 방향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시돈 족속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네 그룹이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겨두신 네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 방향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옵니다. 이 방향에서 오는 문제를 막으면, 또 저 방향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방향에서 오는 문제를 막으면 또 다른 방향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삶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을 찌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가만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삶의 문제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곧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실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동시에 몰려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3.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 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거주한다’라고 기술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데,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거주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가나안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데,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세상의 어둠을 버리고 빛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빛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어둠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십니다(8절).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9절 상).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십니다(9절 하).

‘이스라엘의 죄악 -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사사시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여전히 우리 삶에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가 ‘사사’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사사는 유다지파에 속한 ‘웃니엘’입니다(9절).
사사시대에 처음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는 유다지파였습니다.
또한 그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최초의 사사가 세워진 겁니다.
장차 유다 지파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10-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게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10절 상)

사사에게는 ‘여호와와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여호와와 영이 임했습니다.

둘째는, “...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웃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10절 하)

사사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셋째는,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에..”(11절)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평안’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사사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사사에게는 승리가 있고,

사사가 다스릴 때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사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승리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4.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삶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까지 훈련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믿음과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둠을 버리고 빛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빛을 버리고 어둠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또한 평강을 주십니다.

참 사사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